

집단 효능감과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주올레의 활용과 관련하여

김태윤** 김진영***

국문요약

이 논문은 제주지역에서 추진하여 왔던 마을 만들기의 성공적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하에 집단 효능감 개념과 제주올레 활용을 통해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질문지 면접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3개 마을 올레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이었다.

논문에서는 올레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제주올레에 대한 인식,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올레 역할, 집단 효능감 수준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내용(삶터 만들기, 주민공동체 만들기, 인재 육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지역주민의 집단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제주올레를 이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역주민간 자발적인 논의의 필요성, 숙박시설·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생산물 판매 전략 등 올레탐방객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사업 모색, 인재육성

* 이 논문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김태윤·김진영(2011)의 연구보고서 자료에 근거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과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주민간 인식 격차 해소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집단 효능감, 제주올레, 마을공동체 활성화, 삶터 만들기, 주민 공동체 만들기, 인재 육성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마을 만들기의 기본적 개념은 지역공간을 주민들이 스스로 디자 인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찬호, 2000). 마을 만들기의 시 작은 도시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침체 또는 소외되는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의 농촌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일본 에서는 '마찌쯔꾸리'라는 이름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왔 다. 우리나라의 마을 만들기의 역사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0여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정부 주도형¹⁾ 마 을 만들기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제주지역에서도 지난 10 여년 동안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제주발전연구원, 2009).

마을 만들기의 핵심은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사업들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

1) 정부주도형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의 예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정보화마을, 아름마을 가꾸기, 농촌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 개발사업, 아름다운 어촌, 농촌건강장수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문화·역사·민속마을, 전원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어촌테마마을, 팜 스테이 등을 들 수 있다.

로 실질적인 소득 증진보다는 하드웨어 중심의 계획에 치우쳐 왔다. 올레길 조성 사업도 이용자 중심에 초점을 두고 조성함으로써, 마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 마을 자원과의 연계, 마을의 정체성 보전 등 주민 주도형이 아닌 외부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의 목적인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마을 고유의 전통과 자원보존, 마을 주민간 공동체 의식 강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올레 코스 개설 이후 전국적으로도 ‘걷는 길’ 개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주올레는 마을 만들기에서 핵심 요소인 마을의 홍보와 외부 관광객들의 마을 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제주올레 탐방객들이 마을을 단순 경유할 경우, 올레 개설은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올레 탐방객의 방문을 잘 활용한다면 마을발전에 중요한 기회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주도형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올레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올레 탐방객을 마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마을의 특산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마을의 삶을 이루도록 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제주지역에서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하에 주민주도형 마을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글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제주올레, 마을 공동체 요소와 집단 효능감에 대한 주민 인식과 제주올레를 탐방하는 올레꾼들이 마을에 대해 갖는 인식을 조사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던 하드웨어 중심, 관 주도

및 소수 리더 중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만큼, 집단 효능감과 삶터 만들기·주민공동체 만들기·인재육성과의 관계 분석을 토대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과 분석틀

1) 연구 방법

본 논문의 기초자료는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성산읍 신흥리 및 효돈동 하효마을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²⁾ 두 종류의 질문지를 이

-
- 2) 대상선정에는 제주올레코스가 통과하거나 기·종점에 위치하는 마을, 인구규모, 마을 공동의 사업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성산읍 성산리는 제주올레 1코스가 지나는 곳이며, 종점인 광치기 해안이 성산리에 있다. 광치기 해안은 제주올레 2코스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성산읍 신흥리는 제주올레 3코스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며(3코스 시점: 온평포구, 종점: 표선 해변) 올레코스가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효돈동 하효마을은 제주올레 5코스의 종점부 및 6코스의 시점부에 해당하는 마을로 5코스의 종점이자 6코스의 시점인 쇠소깍을 끼고 있는 마을이다. 인구규모 기준은 인구가 작은 마을에서부터 비교적 큰 마을까지를 고려하였다(신흥리 552명, 성산리 1,802명, 하효마을 3,156명). 또한 기존의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정도가 마을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마을 공동의 사업을 수행해온 마을, 시작하고 있는 마을, 향후 계획 중인 마을을 구분하였다. 성산읍 성산리는 마을 공동사업을 계획 중인 곳으로, 2011년 1월 수립된 '성산일출봉 주변 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마을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다. 성산읍 신흥리는 마을 공동사업을 수행하여 왔던 곳으로, 2002년부터 농촌진흥청 선정 농촌진흥테마마을, 행안부 지정 참살기 마을, 서귀포시 지정 자립형 마을로 지정되어 '어멍아방잔치마을'사업을 수년째 시행하고 있다. 효돈동 하효마을은 마을 공동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곳으로, 투모루 쇠소깍 CB사업단이 2011년 제주도가 공모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선정되어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 선정 기준과 마을별 특성에 대해서는 김태윤·김진영(2011)을 참조할 것.

용한 면접조사를 통해 얻어졌다. 하나는 올레 탐방객에 대한 질문지 조사로서 제주올레를 탐방하면서 갖는 생각(만족도, 인접 마을 이미지 등), 올레 탐방시 해당 마을에 대한 숙박 의향, 선호하는 마을 상품 및 구매 의향, 선호하는 마을 체험프로그램 및 참여 의향, 마을 주민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성산리(올레 1코스), 신흥리(올레 3코스), 하효마을(올레 5코스) 올레를 탐방하는 올레꾼들(성산리 올레1코스 35명, 신흥리 올레3코스 33명, 하효마을 올레5코스 32명) 총 100명이었다.³⁾

다른 하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성산리(98명), 신흥리(104명), 하효마을(100명)에 거주하는 주민 총 3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⁴⁾ 제주올레에 대한 인식, 지역주민의 집단 효능감, 마을 공동사업(샅터 만들기) 관련 내용, 마을 지도자, 자생단체, 주민 등 주민공동체 만들기 관련 내용, 마을의 인재육성 관련 내용 등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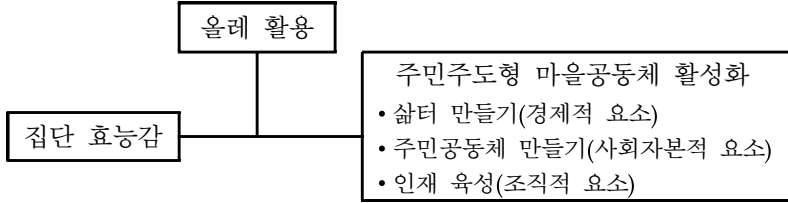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2011. 10. 21~23일까지 이루어졌다.

2) 연구 분석틀

본 논문의 분석틀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제주올레에 대한 지역

-
- 3) 탐방객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통계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 56.0%(56명), 여성 44.0%(44명), 연령별로는 40대 38.0%(38명), 50대 22.0%(22명), 30대 19.0%(19명), 20대 10.0%(10명), 60대 8.0%(8명), 70세 이상 3.0%(3명), 학력별의 경우에는 대학졸업 44.0%(44명), 고졸 31.0%(31명), 전문대졸 14.0%(14명),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6.0%(6명), 중졸 이하 5.0%(5명)의 순이었다.
 - 4) 성별로는 남성 49.7%(150명), 여성 40.3%(152명), 연령순으로는 40대 32.8%(99명), 50대 29.5%(89명), 60대 19.9%(60명), 30대 11.6%(35명), 20대 3.6%(11명), 70세 이상 2.6%(8명), 학력별로는 고졸 54.3%(164명), 대학졸업 15.6%(47명), 중졸 이하 14.9%(45명), 전문대졸 14.6%(44명),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0.7%(2명)의 순이었다.

주민과 올레탐방객의 인식을 살피고 집단 효능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의 요소를 삶터 만들기, 주민공동체 만들기, 마을 인재육성으로 구분하고 집단 효능감 수준에 따른 관계분석을 하였다.



[그림 1] 연구 분석 틀

II.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향

1. 공동체의 개념

사회과학은 출발부터 공동체에 대해 주목하였다. 공동체의 질서와 규범, 그리고 구성원의 행위양식에 대한 탐구가 그것이었는데,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 ‘community’는 여러 집단의 개인 상호간을 연결하는 연계의 네트워크로서 장소에 뿌리를 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강용배, 2004).⁵⁾ 본 논문에서는 주로 지역성에 뿌리를 둔 마을공동체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5) 지역성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학연, 혈연, 종교 등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

지역성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안에 살면서 상호간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Mattessich. et al., 1997), 지역공동체는 집단을 이룬다는 점(공통 요소), 그리고 지리적 영역, 공동의 유대감, 사회적 상호 작용을 포함한다(Hillery, 1995; 정남수 외, 2010). 즉, 공동체의 구성요소로 물리적 조건인 지리적 영역(공간), 공동체를 출현시키는 과정인 사회적 상호작용, 그 결과인 공동의 유대(공동체성)가 개념적 핵심을 이룬다. 공동체에는 자기와 집단을 동일시하는 소속감과 공동 목적을 추구하는 일체감, 그리고 자발적 참여의식과 전인격적 인간관계 등으로 공동체 의식이 존재하므로 일반 대중사회와 구분된다. 마을공동체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생활기반이 되는 범위를 말하며, 흔히 소도시나 촌락을 의미한다(다무라 아키라 지음, 장준호·김선직 역, 2008). 마을의 개념은 기본적인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행정 리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정을 꾸려 나가고 생계를 유지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대부분의 생활 활동을 해나가며, 지역성,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를 가지는 장소를 의미한다(최승호, 2007).

한국 농촌의 전통적인 ‘마을’은 ‘우리’ 의식이 강하고 구성원들 간에 상호부조, 노동교환, 통과의례 공동참여 등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였다. 즉, 마을은 주민들의 자족적인 생활권인 동시에 독립적이고 통일된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집단으로 자연마을로 존재한다(송인하, 2010). 자연마을은 마을, 동·리와 거의 일치하며 강한 사회적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자연마을에는 독자적인 생활규범이 있으며, 이 규범이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상호 제약

한다. 행정리(동)와 자연마을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연마을이 곧 행정리(동)와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몇 개의 자연마을이 하나의 행정리(동)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전통적인 공동체보다 물리적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산업화로 인해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주거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로 원거리에 살고 있어도 교제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체의 지리적 근접성에 대한 중요성은 약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적인 특성보다는 개인적 친밀감, 사회적 응집력, 정신적인 관여 그리고 감정적인 깊이 등이 공동체의 중요 구성 요소로 강조된다(정남수 외, 201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마을공동체 개념은 마을공동의 사무를 주관하는 최소 단위, 즉, '리 단위' 마을로 설정할 수 있으며, 동지역의 경우 과거 읍·면 시절의 '리' 또는 '마을회'가 구성되는 단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내용 구성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또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사업에서 벗어나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정부나 다른 주체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지원 사업 등 외부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이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의미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것을

뜻한다.

이 때,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주체는 마을 구성원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효능감, 특히 집단 효능감은 마을의 공동사업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1) 집단 효능감

효능감(efficacy)의 개념은 개인이나 집단의 성과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효능감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갖고 있는 지식, 기술 및 능력이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혹은 믿음을 뜻한다(Bandura, 1986; 이세규, 2010). 효능감은 신념 혹은 믿음 소유의 주체에 따라 ‘자아 효능감(self efficacy) 혹은 ‘집단 효능감(collective efficacy)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아 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역량에 대해 갖는 신념을, 집단 효능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역량에 대한 집단구성원간의 공유된 신념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 때 개인 효능감과 집단 효능감의 지각 주체는 모두 개인이지만, 지각의 대상은 개인과 집단으로 구별된다(유경화·신원형, 2003; 이세규, 2010).

초기의 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자아 효능감 개념에 바탕하고 있으며 이 개념이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제안들이 나오면서 집단 효능감의 개념적 유용성이 주목받게 되었다. 즉, 개인의 자아 효능감 지각이 개인의 과업성과에 영향을 주듯이 집단의 효능감 지각도 집단의 과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유경화·신원형, 2003).

본 논문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인식이나 마을발전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집단 효능감'으로 사용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인식, 즉 집단 효능감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활성화 방향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샅터 만들기, 주민공동체 만들기, 인재 육성 등 세 가지 내용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행정자치부, 2006; 차성란, 2010). 먼저, 지속가능한 마을의 샅터(물리적, 경제적 기반 요소 등)를 만들어야 한다.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선진국들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특히 농촌지역은 도시의 산업화를 지탱시켜 주는 저수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제주지역의 농촌은 논농사 중심의 농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육지 농촌과 달리 감귤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비교 우위적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 현상이 육지부와 달리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90년대 세계화, 개방화로 인해 감귤산업의 비교 우위적 효과가 큰 위협을 받게 되면서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이 증가하게 되었다(김진영, 2006: 111-114).

이처럼 마을구성원들의 재생산과 충원율이 저하되고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마을공동체를 보존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지역의 핵

심·관심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성원이 충원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농촌 공동체의 물리적, 경제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샅터 만들기가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샅터 만들기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견인하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주민공동체(사회자본적 요소)를 이루어야 한다. 주민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와 적극적 역할이 제고되지 않으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외부지원이 아무리 이루어져도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다.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 간의 강한 연대의식과 높은 통합역량이 필수적이다.

마을 주민 간, 그리고 주민과 지도자 간에는 호혜성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체계가 축적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자본으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협력을 이루는 사회적 역량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자본이 잘 축적된 지역에서 공동사업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지역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체계적 사업프로젝트로 전환시키는 토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기초 요소들 중의 하나가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다.

R. Puttnam(1993)이 시민 공동체(civic community)의 존재가 지방정부의 제도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핵심요인임을 밝혀내고 있듯이 시민 공동체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에 축적되게 되면 지역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기회와 위험요소를 판별하는 집단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집합적 동원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에 추진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정동일·성경룡, 2010). 그러나 이 경우 사회적 자본은 사적, 내부지향적, 폐쇄적인 형태가

아니라 공익적, 외부 연계적, 개방적인 형태로 구성되어야 지역발전에 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마을 지도자 등 마을 인재(조직적 요소)가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만들기'가 곧 공동체 활성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그 비중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마을 만들기가 주민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마을 인적자원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을의 당면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마을 지도자의 리더십은 사업의 불확실성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갈등관리를 수행하고 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지를 견인함과 동시에 집합적 동원의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다(정동일·성경룡, 2010).

주민주도형 공동체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마을 지도자들이 육성되어 이들이 마을의 공동사업을 헌신과 열정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낼 수 있도록 하는 인적자원 개발과정, 즉 평생 학습체계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마을 만들기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극적 지지자, 혹은 방관자의 수준에 머물 경우 사업은 일부 리더들에 의해 결정되고 진행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인적자원 개발에는 마을 지도자의 육성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마을 주민을 헌신적 마을 활동가로 육성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차성란, 2010). 마을 공동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만큼 활동가적 주민의 육성은 리더의 육성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합 프로그램 속에서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III. 제주올레에 대한 인식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1. 마을공동체와 제주올레

제주올레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며 주민들과 주민의 삶의 모습과 마주하기도 하고, 한라산·바다·오름·중산간의 수려한 경관을 만끽할 수 있어 걷는 사람의 오감을 즐겁게 하는 매력 있는 길로 평가되고 있다.⁶⁾ 제주올레 각 코스에 대한 탐방객의 선호도가 다르며, 많은 탐방객으로 붐비는 코스가 있는가 하면, 비교적 한산한 코스도 있다. 올레코스가 갖는 매력이나 마을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 주민과의 대화에서 느끼는 감정들도 올레와 함께 해당마을을 기억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올레 탐방객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마을공동체는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올레탐방객이 직접 마을을 통과하거나 우회함으로써 마을을 홍보하거나 지역생산물 판매가 용이하게 되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올레탐방객을 활용한 민박, 식당 등이 행정이나 일부 주민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올레탐방객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본 절에서는 제주올레를 향후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과 마을둘레를 걷는 올레탐방객과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올레 탐방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기로 한다.

6) 제주올레는 2007년 9월 1코스 개장을 시작으로 2011년 9월 현재 제주올레 19코스가 개장되었다. 그리고 제주본토 뿐만 아니라 부속 도서(우도: 1-1코스, 가파도: 10-1코스, 추자도: 18-1코스)와 중산간 코스(저지마을회관~무릉2리 생태학교: 14-1코스) 등이 개설되었다.

2. 올레 탐방객의 인식

올레탐방에 대한 만족도, 올레와 인접하고 있는 각 마을에 대한 이해도, 마을 이미지 응답분포는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⁷⁾ 올레 탐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마을은 하효 93.8%, 가장 낮은 마을은 신평 63.6%로 올레코스별 만족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올레를 탐방하면서 경유하는 마을에 대한 인지도는 올레에 대한 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하효 71.9%, 성산 57.1%, 신평 42.4%), 신평마을을 경유하는 제2코스의 경우 지역주민의 주거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올레코스가 마을과 얼마만큼 인접하고 있는가에 따라 마을에 대한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을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올레탐방에 대한 만족도 및 마을의 인지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마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올레탐방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을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나 꽃길조성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올레탐방객의 마을 숙박과 관련해서는 숙박의향, 선호하는 숙박형태 등이 조사되었다. 마을에서 숙박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체 올레탐방객의 35% 정도가 숙박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

7) '올레 탐방에 대해 만족한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그렇다' 56.0%(56명), '매우 그렇다' 23.0%(23명), '보통이다' 15.0%(15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4.0%(4명), '전혀 그렇지 않다' 2.0%(2명)의 순을 보이고 있으며, '올레와 인접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 29.0%(29명), '대체로 그렇다' 28.0%(28명), '보통이다' 34.0%(34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4.0%(4명), '전혀 그렇지 않다' 5.0%(5명)로 나타나고 있다. '마을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 35.0%(35명), '매우 그렇다' 32.0%(32명), '보통이다' 30.0%(30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3.0%(3명)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타나고 있다.⁸⁾ 조사대상 마을별로는 성산 40.0%, 하효 37.5%, 신흥 27.3%로 나타나고 있어, 농촌지역에서의 단순 숙박보다는 숙박하는 동안에도 탐방하고 싶은 자원, 예를 들면 성산일출봉, 쇠소각 등 마을이 지니고 있는 매력 요인 유무가 숙박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마을내에 탐방객을 유인할 만한 자연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매력요소 발굴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선호하는 숙박형태에 대해서는 펜션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6.9%(33명)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숙박하는 동안에도 개인의 독립적 시간을 활용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다음으로 민박을 선호하는 응답이 25.9%(15명)를 차지하고 있다.⁹⁾ 따라서 올레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사업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이와 같은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을에 숙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짧은 일정 등으로 인해 숙박할 계획이 없어서’라는 응답(47.6%, 20명)이 ‘숙박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42명)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원하는 수준의 숙박시설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26.2%(11명)를 보이고 있어, 앞서 언급했던 펜션, 민박 등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올레탐방객을 이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올레탐방객이 지역특산품을 구매하는 것

-
- 8) 올레길 탐방 마을에 숙박할 의향은 ‘대체로 그렇다’ 29.0%(29명), ‘보통이다’ 23.0%(23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22.0%(22명), ‘전혀 그렇지 않다’ 20.0%(20명)의 순으로 응답하여 해당 마을에 숙박할 의향은 다른 문항의 응답특성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 9) 그밖의 선호하는 숙박형태는 일반 호텔급 8.6%(5명), 여관이나 모텔 6.9%(4명), 관광호텔 이상급 1.7%(1명)의 순이었다.

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 탐방객의 절반 정도인 49.0%가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 마을별 조사에서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하효 56.3%, 성산 40.0%, 신평 51.5%로 나타나고 있는데, 올레탐방객은 처음부터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정하여 탐방하는 것이 아니라 올레를 탐방하면서 상품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올레탐방객이 선호하는 지역생산물에 대한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레탐방객이 선호하는 구매 상품으로는 감귤류 등 과일류가 전체의 4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올레를 탐방하면서 시각적인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마을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올레탐방객들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품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올레탐방객 중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없는 이유에는 ‘들고 다니기 불편하여’라는 응답이 구매할 의향이 없다는 전체 응답자(17명)의 58.8%(10명)를 차지하고 있다. 올레탐방객이 해당 상품을 구매하면 원하는 장소까지 전달할 수 있는 택배 시스템과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판매시설 설치 등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올레탐방객의 체험프로그램 참여 의향과 선호하는 체험프로그램의 유형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올레탐방객의 체험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2.0%가 체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¹¹⁾ 조사 대상 마을별로는 하효 59.4%,

10) ‘올레길을 탐방하면서 마을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 문항에 대해 ‘보통이다’ 34.0%(34명), ‘대체로 그렇다’ 33.0%(33명), ‘정말 그렇다’ 16.0%(16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12.0%(12명), ‘전혀 그렇지 않다’ 5.0%(5명)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마을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구매 의향이 비교적 높다.

생산 37.1%, 신품 60.6%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체험프로그램도 마을 축제나 문화행사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0.6%로 나타나고 있다.¹²⁾ 관광지화된 마을에서의 체험의사보다는 전통적인 제주지역 농촌이 지니고 있는 마을축제나 문화행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올레탐방객들에게는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신품마을의 경우 ‘어명아방 잔치마을’을 체험하는 탐방객이 많은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 농촌이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마을주민의 인식

제주올레가 개설된 이후 마을 주민들이 갖는 올레에 대한 인식은 올레가 마을발전, 주민간 상호신뢰, 마을 경관 등 자연환경의 공개, 문화자원 공개, 마을의 농수축산물 판매, 마을발전의 새로운 기회, 마을자원의 가치 인식, 올레탐방객에 대한 인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올레 코스 개설은 마을 발전에 긍정적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전체의 84.7%를 차지하고 있다. 마을별로는 모두 긍정적인 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데, 성산 90.0%(90명), 하효

-
- 11) ‘마을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 41.0%(41명), ‘보통이다’ 33.0%(33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15.0%(15명), ‘정말 그렇다’ 11.0%(11명)의 순으로 마을 개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12) 이밖의 선호하는 체험 프로그램 유형으로는 전통시장(오일시장 등) 27.1%(23명), 농어촌 체험 22.4%(19명)의 순이었다.

88.8%(87명), 신평 76.0%(79명) 순이었다.

<표 1> 올레에 대한 마을주민의 인식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올레 코스 개설은 마을 발전에 긍정적이다.	81	26.8	175	57.9	44	14.6	2	0.7	-	-	4.11	.66
올레 코스가 개설되면서 마을주민간에 상호 신뢰가 커졌다.	71	23.5	127	42.1	97	32.1	7	2.3	-	-	3.87	.80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 등 자연환경이 이용객들에 공개되어 자랑스럽다.	90	29.8	157	52.0	54	17.9	1	0.3	-	-	4.11	.69
마을의 문화자원을 이용객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다.	93	30.8	164	54.3	43	14.2	1	0.3	1	0.3	4.15	.69
올레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마을의 농수축산물 판매가 증가하였다.	76	25.2	113	37.4	94	31.1	16	5.3	3	1.0	3.80	.91
올레 코스가 개설됨에 따라 마을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다.	67	22.2	160	53.0	70	23.2	4	1.3	1	0.3	3.95	.73
올레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마을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79	26.2	145	48.0	76	25.2	2	0.7	-	-	4.00	.74
올레 이용자에 대해 호의적인 편이다.	82	27.2	163	54.0	55	18.2	2	0.7	-	-	4.08	.69

주) 평균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여 계산되었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다.

'올레 코스가 개설되면서 마을 주민간에 상호 신뢰가 커졌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제주올레가 마을 주민간 상호신뢰를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별로는 긍정적인 응답이 성산 77.0%(77명), 하효 61.2%(37명), 신평 58.7%(61명)로, 성산리

의 경우 기존 성산일출봉 중심의 관광에 더하여 올레개설로 인해 올레탐방객과 주민간의 접촉이 이전보다 증가하면서 주민간 상호신뢰가 높게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 사료된다.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 등 자연환경이 이용객들에 공개되어 자랑스럽다’라는 문항이나 ‘마을의 문화자원을 이용객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매우 높아 마을의 경관과 문화자원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올레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마을의 농수축산물 판매가 증가하였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전체의 62.6%였다. 마을별로는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성산 81.0%(81명), 하효 65.3%(64명), 신평 42.3%(44명)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도 ‘올레 코스가 개설됨에 따라 마을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다’, ‘올레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마을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올레 이용자에 대해 호의적인 편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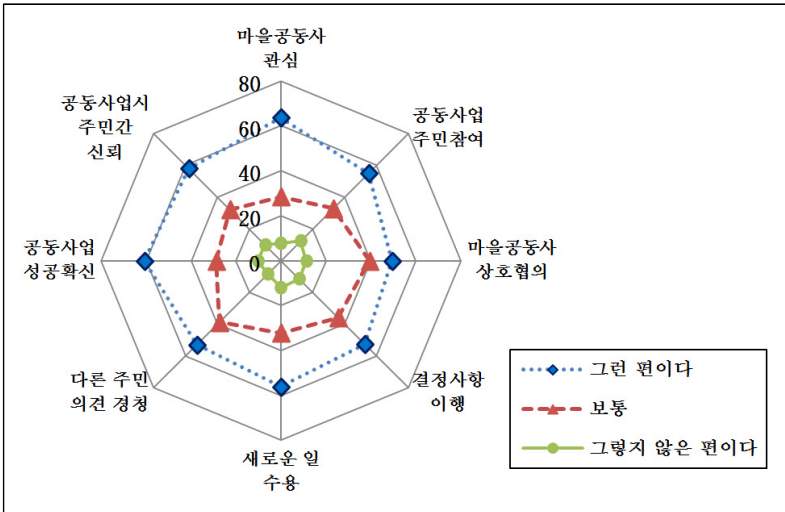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는 마을이 지니고 있는 경관, 문화, 경제적 자원을 바탕으로 올레를 활용하는 마을발전 방안 및 주민간 신뢰증진 사업 모델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IV. 집단 효능감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소 분석

1. 주민의 집단 효능감 수준에 따른 제주올레 인식

주민의 집단 효능감은 마을 공동의 일에 대한 관심, 마을의 공동 행사나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마을 공동의 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 협의, 마을에서 결정한 일에 대한 이행, 새로운 일에 대한 수용, 다

른 주민의 의견에 대한 경청, 마을 공동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 마을 공동사업 수행시 주민간 신뢰 등에 대한 문항들¹³⁾로 측정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집단 효능감의 항목별 응답 분포

그림은 마을 또는 마을주민과 관련된 집단 효능감 항목들에 대한

- 13) 집단 효능감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질문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 공동의 일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② “우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 공동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③ “우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 공동의 사업을 결정할 때 상호협외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④ “우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 등에서 결정된 일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잘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우리 마을 주민들은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⑥ “우리 마을 주민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⑦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⑧ “우리 마을 사람들은 마을 공동사업을 할 때 서로 신뢰하는 편입니까?”

응답분포를 ‘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긍정-부정의 범주별로 나타낸 것이다. 마을 주민의 집단 효능감은 ‘상’, ‘중’, ‘하’로 구분하였으며, 집단 효능감에 따른 올레 또는 마을 공동체 관련 항목들과의 관계성을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¹⁴⁾

집단 효능감 정도별로 올레코스 개설이 마을 발전에 미치는 영향 인식을 보면 긍정적인 응답이 ‘상’ 95.3%(101명), ‘하’ 85.1%(40명), ‘중’ 77.2%(115명)로 나타나고 있어 집단 효능감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

올레코스가 주민의 상호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집단 효능감 ‘상’집단이 88.7%(94명)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 ‘하’집단은 각각 이보다 훨씬 낮은 55.0%(82명), 46.8%(22명)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주민 간의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및 마을 주민의 집단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을의 경관 등 자연환경에 대한 자긍심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높지만 집단 효능감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문화자원 공개에 대한 자긍심 관련 항목에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집단 효능감 정도별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긍정적인 응답은 집단 효능감 ‘상’이 96.2%(102명)로 ‘중’ 79.9%(119명), ‘하’ 76.6%(36명)에 비해 높다.

올레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농수축산물 판매가 늘어났다는

14) 앞의 주11)에서 정리한 마을 공동의 사업이나 주민들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8개 문항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한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문항을 묶어 집단 효능감 지수점수(점수범위: 8~40점)를 산출하였으며 평균점을 중심으로 통계적 분포를 고려하여 상, 중, 하로 분류하였다.

인식에서도 집단 효능감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상’인 집단이 ‘증가하였다’는 긍정적 의견을 보인 응답 비율이 81.1%(86명)로 ‘중’ 53.0%(79명), ‘하’ 51.1%(24명)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 ‘올레 코스가 개설됨에 따라 마을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올레가 ‘기회요인’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이러한 응답은 ‘상’ 87.7%(93명)로 ‘중’ 68.5%(102명), ‘하’ 68.1%(32명)보다 10%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집단 효능감별 제주올레에 대한 인식

구 분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올레 코스 개설은 마을 발전에 긍정적이다.	95.3	77.2	85.1	4.7	21.5	14.9	-	1.3	-
올레 코스가 개설되면서 마을 주민간에 상호 신뢰가 커졌다.	88.7	55.0	46.8	10.4	43.0	46.8	0.9	2.1	6.4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 등 자연 환경이 이용객들에 공개되어 자랑스럽다.	94.3	75.2	74.5	5.7	24.2	25.5	-	0.7	-
마을의 문화자원을 이용객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다.	96.2	79.9	76.6	3.8	18.8	23.4	-	1.3	-
올레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마을의 농수축산물 판매가 증가하였다.	81.1	53.0	21.1	14.2	40.3	40.4	4.7	6.7	8.5
올레 코스가 개설됨에 따라 마을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다.	87.7	68.5	68.1	11.3	29.5	29.8	0.9	2.1	2.1
올레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마을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88.7	69.8	55.3	11.3	29.5	42.6	-	0.7	2.1
올레 이용자에 대해 호의적인 편이다.	97.2	71.8	74.5	2.8	27.5	23.4	-	0.7	2.1

‘올레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마을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는 인식도 집단 효능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상’이 88.7%(94명)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데 비해 ‘중’ 69.8%(104명), ‘하’ 55.3%(26명)로, 그 차이가 분명하다. 올레탐방객에 대한 마을 주민의 인식도 전체적으로 매우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집단 효능감 ‘상’집단이 97.2%(103명)로 다른 집단에 비해 더 호의적이다.

집단 효능감과 제주올레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 집단 효능감이 높을수록 제주올레가 초래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레가 주민의 의식과 마을의 변화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러한 경향은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더욱 강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집단 효능감의 중요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2. 집단 효능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소 분석

1) 집단 효능감과 샅터 만들기

샅터 만들기는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로서 마을의 경제적 자원, 즉 우수 경관 보유, 문화유적의 우수성, 체류하거나 체험활동 할 만한 자원의 보유,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만한 잠재자원 보유,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산물(식품) 보유, 올레탐방객의 마을발전 기여 가능성 등으로 측정되었다.

① 마을의 우수 경관 보유

‘우리 마을은 우수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매우 높게 나

타났으며, 집단 효능감별 근소한 차이가 있다. 즉 집단 효능감 ‘상’ 96.2%(102명), ‘하’ 80.9%(38명), ‘중’ 77.9%(116명)의 순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응답비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문화유적의 우수성

‘우리 마을은 문화유적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우수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집단 효능감별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수하다’는 응답비율은 집단 효능감 ‘상’ 87.7%(93명), ‘하’ 76.6%(95명), ‘중’ 63.8%(95명)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우수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집단효능감에 관계없이 거의 10%대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③ 매력 있는 자원 보유

‘우리 마을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체류하고 싶거나 체험활동을 할 만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나, 집단 효능감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보유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상’ 84.9%(90명), ‘중’ 65.8%(98명), ‘하’ 48.9%(23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응답비율도 ‘중’ 28.9%(43명), ‘하’ 40.4%(19명)로 나타났다.

④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관광자원으로 개발할만한 잠재자원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문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잠재력이 ‘높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집단 효능감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이 ‘높

다는 응답이 집단 효능감 '상' 86.8%(92명), '중' 60.4%(90명), '하' 57.4%(27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⑤ 구매하고 싶은 농수축산물 보유

마을이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어 하는 농산물(또는 수산물)이나 식품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지를 묻는 문항에서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집단 효능감 '상' 81.1%(86명), '중' 64.4%(96명), '하' 46.8%(22명)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집단 효능감 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 삶터 만들기에 대한 집단 효능감 '상'인 집단의 응답 특성

구 분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우수 경관 보유	72	96.2	4	3.8	-	-
우수 문화유적 보유	93	87.7	12	11.3	1	0.9
체류할 만한 자원 보유	90	84.9	15	14.2	1	0.9
관광자원개발 잠재력	92	86.8	13	12.3	1	0.9
구매하고 싶은 농수축산물 보유	86	81.1	19	17.9	1	0.9
올레탐방객의 마을 발전 기여도	96	90.6	10	9.4	-	-
평 균		87.9		11.5		0.6

⑥ 올레탐방객의 마을 발전 기여도

올레탐방객 등 외지인들이 우리 마을을 찾아오는 것이 마을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그 긍정적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을 발전에 '도움된다'는 응답이 '상' 90.6%(96명), '중' 78.5%(117

명), '하' 72.3%(34명)의 순을 보이고 있어 집단 효능감이 높을수록 '도움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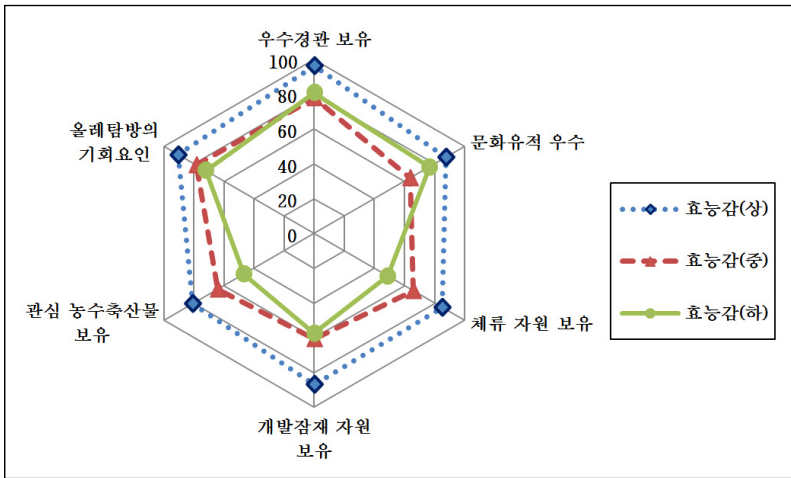
<표 4> 삶터 만들기에 대한 집단 효능감 '중'인 집단의 응답 특성

구 분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우수 경관 보유	116	77.9	32	21.5	1	0.7
우수 문화유적 보유	95	63.8	44	29.5	10	6.7
체류할 만한 자원 보유	98	65.8	43	28.9	8	5.4
관광자원개발 잠재력	90	60.4	56	37.6	3	2.0
구매하고 싶은 농수축산물 보유	96	64.4	48	32.2	5	3.4
올레탐방객의 마을 발전 기여도	117	78.5	30	20.1	2	1.3
평 균		68.5		28.3		3.3

<표 5> 삶터 만들기에 대한 집단 효능감 '하'인 집단의 응답 특성

구 분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우수 경관 보유	38	80.9	8	17.0	1	2.1
우수 문화유적 보유	36	76.6	9	19.1	2	4.3
체류할 만한 자원 보유	23	48.9	19	40.4	5	10.6
관광자원개발 잠재력	27	57.4	18	38.3	2	4.3
구매하고 싶은 농수축산물 보유	22	46.8	23	48.9	2	4.3
올레탐방객의 마을 발전 기여도	34	72.3	13	27.7	-	-
평 균		63.8		31.9		4.3

집단 효능감별로 삶터 만들기와 관련된 항목들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그런 편이다)의 평균비율을 보면, 집단 효능감 '상' 87.9%, '중' 68.5%, '하' 63.8%로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삶터 만들기와 관련된 항목들에 대한 집단 효능감 수준별 특성 비교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올레탐방이 마을 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와 '우수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는 집단 효능감별 차이가 적으나,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농수축산물 보유'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체류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항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집단 효능감별 삶터 만들기에 대한 인식

2) 집단 효능감과 주민공동체 만들기

주민공동체 만들기는 마을 공동사업 추진시 주민의 결속력, 마을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 배분, 마을 공동사업 추진시 주민간 호의, 주

민갈등시 타협의 용이성, 자생단체간 상호 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① 마을 공동사업 추진시 주민의 결속력

‘마을 공동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의 결속력이 강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집단 효능감별로 각각 30% 가량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마을 공동사업 추진 시 ‘결속하게 될 것이다’는 응답이 집단 효능감 ‘상’ 82.1%(87명), ‘중’ 58.4%(87명), ‘하’ 19.1%(9명)로 효능감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집단 효능감의 차이가 마을단위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 간 결속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라 할 만하다.

② 마을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 배분

‘마을 공동의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배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집단 효능감 정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문항에 비하여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집단 효능감 ‘상’ 67.0%(71명), ‘중’ 43.0%(64명), ‘하’ 10.6%(5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집단 효능감이 낮을수록 마을 공동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배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③ 주민갈등시 타협의 용이성

주민간에 갈등이 발생될 경우 타협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응답도 집단 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쉽게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는 응답이 집단 효능감 ‘상’ 75.5%(80명), ‘중’ 51.0%(76명), ‘하’ 17.0%(8명) 순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볼 때, 주민갈등의 해결 전망은 집단 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④ 자생단체간 상호 협력

‘공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생단체들끼리 서로 협력을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인식도 집단 효능감 정도별 차이가 현격하다. 협력한다는 응답이 집단 효능감 ‘상’은 79.2%(84명), ‘중’ 44.4%(83명), ‘하’ 14.9%(7명) 순이며, ‘협력하지 않는다’는 ‘하’에서 46.8%(22명)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집단 효능감 ‘상’인 집단의 응답 특성

구 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공동사업 추진시 주민 결속력	87	82.1	18	17.0	1	0.9
마을 공동사업시 이익 배분	71	67.0	26	24.5	9	8.5
주민갈등시 타협의 용이성	80	75.5	24	22.6	2	1.9
자생단체간 상호 협력	84	79.2	21	19.8	1	0.9
평 균		76.0		21.0		3.1

<표 7>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집단 효능감 '중인 집단의 응답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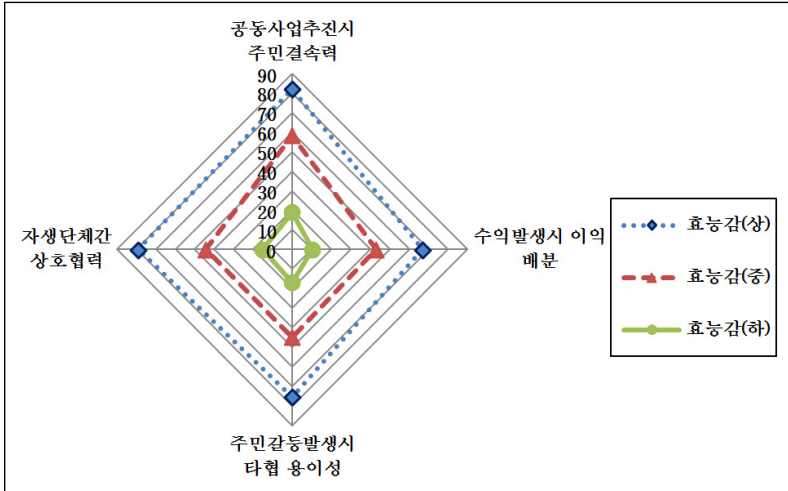
구 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공동사업 추진시 주민 결속력	87	58.4	58	38.9	4	2.7
마을 공동사업시 이익 배분	64	43.0	56	37.6	29	19.5
주민갈등시 타협의 용이성	67	45.0	76	51.0	6	4.0
자생단체간 상호 협력	66	44.3	83	55.7	-	-
평 균		47.7		45.8		6.6

<표 8>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집단 효능감 '하인 집단의 응답 특성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공동사업 추진시 주민 결속력	9	19.1	10	21.3	28	59.6
마을 공동사업시 이익 배분	5	10.6	14	29.8	28	59.6
주민갈등시 타협의 용이성	8	17.0	7	14.9	32	68.1
자생단체간 상호 협력	7	14.9	18	38.3	22	46.8
평 균		15.4		26.1		58.5

집단 효능감 정도에 따라 주민공동체 만들기 항목들을 응답범주 별로 평균한 비율을 보면 긍정적인 응답의 경우 집단 효능감 '상인 집단은 76.8%, '중인 집단은 48.7%, '하인 집단은 14.9%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능감 정도별 차이는 앞서 검토한 삶터 만들기에서 보다는 더 격차가 크다. 특히 마을 공동사업으로 수익 발생시 따르는 이익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훨씬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현실적인 이익문제와 연관될수록 의견의 다름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는 주민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항목들에 대한 집단 효능감 수준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집단 효능감별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인식

3) 집단 효능감과 인재 육성

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마을발전에 대한 지도자의 역할, 지도자 해외 견학에 대한 마을 공동경비 부담, 청년의 장기 교육에 대한 마을 공동 경비 부담, 마을공동 경비 부담으로 마을 지도자 인센티브 부여 등의 문항으로 분석하였다.

① 마을발전에 대한 지도자의 역할

‘우리 마을 발전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

는 문항에 대해 대부분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어 마을발전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집단 효능감별로는 '상' 84.0%(89명), '중' 73.2%(109명), '하' 78.7%(37명)의 순으로 약간의 의미 있는 차이가 나고 있을 뿐,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② 마을 공동경비 부담으로 지도자 해외 견학

'우리 마을을 위해 애쓰는 지도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마을 공동 경비로 해외견학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집단 효능감 '상' 53.8%(57명), '중' 43.0%(64명), '하' 42.6%(20명)의 순으로 '그렇다'는 의견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효능감 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앞의 문항과 달리 동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는 인재육성의 방법으로 해외 견학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마을공동 경비 부담으로 청년의 장기 교육

앞의 ②번 문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마을을 책임질 청년들을 위해 마을 공동 경비로 장기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을공동 경비로 장기교육을 '보내야 한다'는 응답이 집단 효능감 '상' 68.9%(73명), '중' 61.7%(92명), '하' 53.2%(25명)의 순을 보임으로써 마을지도자의 해외견학, 청년의 장기교육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③ 마을공동 경비 부담으로 마을 지도자 인센티브

'우리 마을 지도자가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한 만큼 마을 공동 경

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집단 효능감 ‘상’ 67.9%(72명), ‘중’ 55.0%(82명), ‘하’ 34.0%(16명)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집단 효능감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9> 인재 육성에 대한 집단 효능감 ‘상’인 집단의 응답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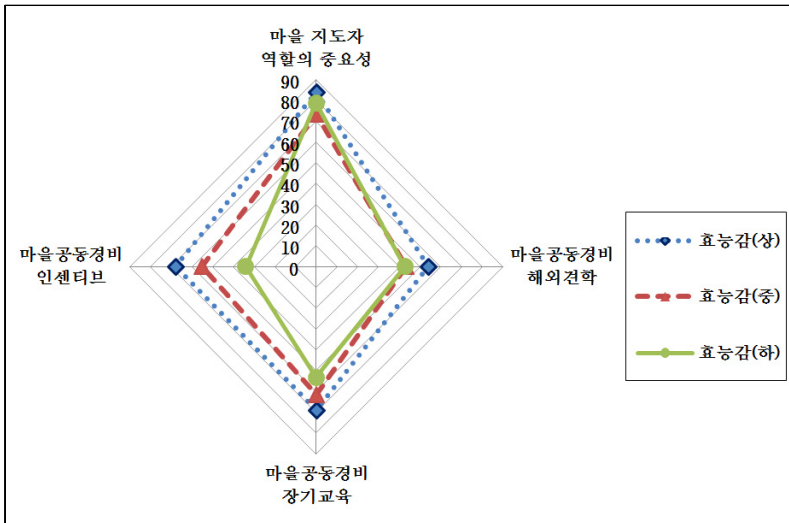
구 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마을발전에 대한 지도자 역할의 중요성	89	84.0	15	14.2	2	1.9
마을공동경비로 지도자 해외견학	57	53.8	34	32.1	15	14.2
마을공동경비로 청년 장기교육	73	68.9	21	19.8	12	11.3
마을공동경비로 지도자 인센티브 부여	72	67.9	22	20.8	12	11.3
평 균		68.7		21.7		9.7

<표 10> 인재 육성에 대한 집단 효능감 ‘중’인 집단의 응답 특성

구 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마을발전에 대한 지도자 역할의 중요성	109	73.2	38	25.5	2	1.3
마을공동경비로 지도자 해외견학	64	43.0	63	42.3	22	14.8
마을공동경비로 청년 장기교육	92	61.7	52	34.9	5	3.4
마을공동경비로 지도자 인센티브 부여	82	55.0	54	36.2	13	8.7
평 균		58.2		34.7		7.1

<표 11> 인재 육성에 대한 '집단 효능감 '하'인 집단의 응답 특성

구 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마을발전에 대한 지도자 역할의 중요성	37	78.7	7	14.9	3	6.4
마을공동경비로 지도자 해외견학	20	42.6	16	34.0	11	23.4
마을공동경비로 청년 장기교육	25	53.2	15	31.9	7	14.9
마을공동경비로 지도자 인센티브 부여	16	34.0	16	34.0	15	31.9
평 균		52.1		28.7		19.2



[그림 5] 집단 효능감별 인재 육성에 대한 인식

인재 육성 관련 전체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의 평균비율을 보면 집단 효능감 '상' 68.7%, '중' 58.2%, '하' 52.1%로 집단 효능감

수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재 육성과 관련된 개별 항목들에 대한 집단 효능감별 차이 비교에서 보듯이([그림 5] 참조) 삶터 만들기와 주민공동체 만들기 관련 항목들보다는 긍정적 의견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항목에 대한 응답이 비용이 적게 드는 응답 항목보다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집단 효능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소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면 <표 12>, [그림 6]과 같다. [그림 6]에서 보는 것처럼 집단 효능감 '상'인 집단의 삶터 만들기와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비교할 때 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추동하는데 있어서 인재 육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인재 육성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인식 강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은 단기적 사업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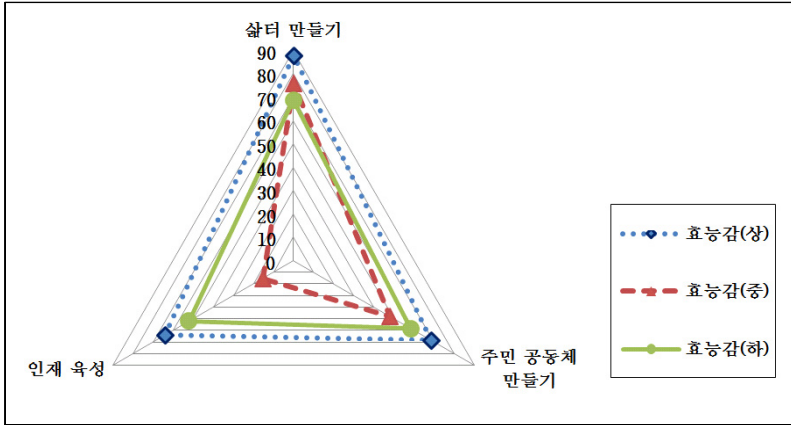
<표 12> 집단 효능감과 마을공동체 요소와의 관계

집단 효능감	삶터 만들기	주민공동체 만들기	인재 육성	응답자 수 (비율, %)
상	87.9	76.0	68.7	106명(35.1%)
중	68.5	47.7	58.2	149명(49.3%)
하	63.8	15.4	52.1	47명(15.6%)

주) 표상의 수치는 각 항목들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평균 응답 비율임.

마을에서는 집단 효능감 수준이 상이한 주민들이 함께 거주하며 공동의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집단 효능감 '중', '하' 수준인 주민들은 '주민공동체 만들기', '인재 육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

는 주민들의 비율이 상당함을 의미한다. 특히,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대해서는 집단 효능감별로 무려 3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6] 집단 효능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소 분석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을 만들기 사업(정부 주도형 마을만들기)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제주지역 마을 만들기 성공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문제인식하에 본 논문은 집단 효능감 개념과 제주올레 활용을 통해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¹⁵⁾

15) 그 동안 이루어져 왔던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업비 투입 규모에 비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올레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제주올레에 대한 인식,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올레 역할, 집단 효능감 수준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내용(샬터 만들기, 주민공동체 만들기, 인재 육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레탐방객들은 올레탐방에 대한 만족도(3개 코스 평균 79.1%가 만족한다는 긍정적 의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을에 대한 인지도와 이미지는 직접 마을을 경유하거나 우회하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올레탐방객의 35% 정도가 마을에서 숙박할 의향을 갖고 있으며, 지역 생산품 구매의사는 49.3%(감귤 등 과일류, 기념품, 수산물, 농산품류 순), 마을에서 개최되는 체험프로그램 참여 의향은 전체의 52.0%로 마을 축제나 문화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지역주민들은 집단 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제주올레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집단 효능감의 수준에 관계없이 제주올레가 마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마을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매우 높다.

넷째, 집단 효능감별 샬터 만들기와 관련하여 '올레탐방이 마을 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수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는 집단 효능감 수준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보유'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체류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항에는 집단 효능감 정도

례하여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대한 기대는 높았지만 체감지수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마을 만들기 성공 여부는 이를 운영하는 주민, 즉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어, 주민주도형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다.

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주민공동체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삶터 만들기에서보다 집단 효능감 수준별 견해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마을 공동사업으로 수익 발생시 이익 배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항목에서 집단 효능감 수준별로 30% 이상의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여섯째, 집단 효능감별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삶터 만들기, 주민공동체 만들기보다 상당히 낮다. 삶터 만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의견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공동체 만들기와 비교해보면 집단 효능감 ‘중, 하’인 경우에는 오히려 긍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올레를 이용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될 수 있다. 첫째,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이며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그리고 ‘이웃 주민’에 대해 갖는 집단 효능감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집단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시급하다.

둘째, 제주올레가 마을 발전과 자긍심 향상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앞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제주올레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발적인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중요하므로, 올레탐방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숙박시설,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생산물 판매 전략 등 올레탐방객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사업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올레탐방객들에게

마을의 특성과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생산물 구매 의욕을 높이기 위해 올레코스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삶터 만들기를 위한 자원의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인재육성과 주민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주민간 인식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마을과 지역주민에 대한 집단 효능감 ‘중’, ‘하’인 주민의 비율이 65%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 특성을 고려할 때 주민공동체 만들기가 시급하며, 이를 통한 인재육성과 삶터 만들기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제주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에도 종전과 같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마을공동체 사업’(community business)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경우 집단 효능감 측면에서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을 때 사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마을 공동의 자원을 이용할 때에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

끝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짧은 기간에 이를 수 있는 단기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마을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사업추진 주체와 체계를 정교하게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영, 2006, 『제주사회와 복지』, 제주대학교출판부.
- 김태운·김진영, 2011, 「제주올레를 이용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김찬호, 2000, 「일본의 도시화 과정에서 마을 만들기의 전개와 주민참여」, 『한국도시행정학보』 13(11), 95-115.
- 송인하, 2010, 「마을공동체 운동의 성공조건과 과제」, 『지방자치연구』 14, 33-64.
- 유경화·신원형, 2003, 「경찰조직에서 리더십 유형과 객관적 조직 성과 간의 관계」, 『한국행정학보』 37(3), 379-397.
- 이세규, 2010, 「지역주민의 집단 효능감이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태도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2(2), 163-184.
- 정남수·조영재·장우석·정호현·김홍연, 2010, 「충청남도 농어촌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한마음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정동일·성경룡, 2010, 「창조적 지역발전과 그룹지니어스」, 『한국사회학』 44(1), 60-97.
- 제주발전연구원, 2009,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차성란, 2010,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 요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 최승호, 2007, 「한국 생태공동체의 실상과 전망」안에 있는 '한국생태공동체에서의 노동'에서, 국중광 외, 월인.
- 행정자치부, 2006,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모델 유형화 및 공모방안 수립 연구」.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Hillery, Jr. G. A., 1995, *Definitions of Community: Communes and Utopias in Sociological Perspectiv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Mattessich, P. et al., 1997, *Community Building: What Makes It Work*, Saint Paul, M. N.: Wilder Foundation Publications.

Putnam,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Abstract

Collective Efficacy and Vitalization of Local
Residents' Initiative Community in terms of the
Utilization of Jeju Olle

Kim, Tae-Youn* Kim, Jin-You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ek some directions to vitalize residents' initiative community in terms of collective efficacy and the utilization of Jeju Olle. This study is based on the survey data with samples totalled to 402 persons who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They are composed of 302 residents and 100 visitor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collective efficacy is very important in finding directions to vitalize communities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Second, the residents with high degree of collective efficacy think that Jeju olle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village development.

Third, the village development based on residents' initiatives can be composed of making life space(economic factor), making residents' community(social capital factor) and cultivating talented personnel (organizational factor). It is shown that the higher residents are in collective

* Senior Research Fellow, Jeju Development Institute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efficacy, the more positive their consciousness is in these factors.

Finally, it is required that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operated to improve collective efficacy as it operates significantly in community vitalization.

Key Words: Residents' Initiative Community, Vitalization of Community, Collective Efficacy, Making Life Space, Making Residents' Community, Cultivating Talented Personnel, Jeju Olle

교신: 김진영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E-mail: jykim@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2. 6. 25.

수정완료일 2012. 8. 13.

게재확정일 2012. 8. 17.